

◆ 북미

- 美 자동차보험료 인상이나 인하냐?
- GEICO 自保社, 뉴욕주 보험감독청 제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청 철회

◆ 유럽

- Swiss Re, 2/4분기 당기순이익 6억 스위스프랑 기록
- AXA, 2008년 상반기 실적 발표

◆ 일본

- 일본 대형 손보사 7월말 수입보험료 실적 저조
- 일본 정부 사실상 경기침체 국면 진입 밝혀
- 일본 생보사, 자금 조달 수단 다양화 추진

◆ 중국

- 중국 연금보험시장, 이제는 중소기업이다
- 중국 보감위, 보험회사 자산운용 범위 확대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美 자동차보험료 인상이나 인하냐?

- 美 온라인자동차보험사인 Insurance.com은 자동차보험요율이 2004년 이후 정체 또는 하락해 왔으나 향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Insurance.com에 따르면 6월말 현재 美 연평균 자동차보험료는 전년대비 3.4%상승한 \$1,893에 이른다고 발표
- 최근 몇 년간 자동차사고 발생건수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Insurance Research Council에 따르면 2000~2006년 기간 중 대인사고는 19% 감소, 대물사고는 11% 감소, 자손사고는 14% 감소함.
- 이는 차량, 일반도로, 고속도로가 과거에 비해 더욱 안전해진 것에 기인함.
- 그러나, 자동차사고 손해액 증가율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2000~2006년 기간 중 대인사고는 22% 증가, 대물사고는 18% 증가, 자손은 19% 증가
- 이는 큰 폭의 자동차 수리비용 증가와 사고피해자의 의료비용 과당 청구에 기인
- 의료비용의 과당 청구는 자동차사고 관련자들의 값비싼 물리치료와 MRI 등의 고가 진단 요구에 기인
- 자동차수리비 증가와 의료비용 과당청구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사고율의 감소로 인한 美자동차보험사의 보험료 관련 수익을 상회하는 가운데 향후 자동차사고율이 증가하든지 또는 최소한 감소하지 않는다면 자동차평균보험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최근 1겔론에 \$4까지 치솟은 휘발유 값 인상은 자동차 운행을 크게 떨어뜨려 자동차사고율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자동차

보험료 인상 전망에 대한 견해가 분분함.

- 한편, Insurance Research Council의 대변인인 데이비드 코럼은 휘발류 값 인상은 보험사에게 결과를 알 수 없는 와일드카드가 될 것이라고 밝힘.
- 휘발류 값의 인상은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여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 반면,
- 장기적으로는 점차 주유비가 적게 드는 소형차를 구매하여 운행하게 되면 그 만큼 안전도가 떨어져서 자동차사고 손해액이 증가하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봄.
- 예를 들어 SUV차량과 소형차가 부딪혔을 경우 사고피해는 소형차에게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The Kansas City Star, 8/2)

□ GEICO 자보사, 뉴욕주 보험감독청 제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청 철회

- 뉴욕주 소재 상위 자동차전문보험사인 GEICO와 GEICO General은 뉴욕주 보험감독청과의 몇 차례 논의 이후 보험료 인상관련 요청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뉴욕주 보험감독청이 밝힘.
- 따라서 보험료인상을 요청하였던 다른 자동차 보험사들도 뉴욕주의 보험감독청의 “고유가 및 그에 따른 운전시간 감소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됨.
- 뉴욕주 보험감독청장인 에릭 디날로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청은 주행관련 제반사항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다시 한 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디날로 보험감독청장은 “고유가는 운전자의 주행거리를 단축시켜 뉴욕주 교통사고 감소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이는 자동차사고 지급보험금을 줄이는 기회가 되는데, 나의 관심사는 보험금 지급 감소가 뉴욕주

운전자 모두에게 보험료감소의 형태로 되돌려 지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GEICO는 그런 의미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요청을 철회하였고 보험료 인상을 추진 중인 다른 보험사도 주행거리 감소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전문가들은 美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5월중 뉴욕주 운전자의 주행거리는 전년 동기에 비해 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감소추세가 미국 전체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주행거리 감소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함.

(Insurance Journal 8/7)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Swiss Re, 2/4분기 당기순이익 6억 스위스프랑 기록

○ 스위스 리(Swiss Re)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2/4분기 6억 스위스프랑 (약 5,7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연간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5%로 나타났다고 발표함.

- 그러나 스위스 리는 신용디폴트스왑(CDS)* 미실현 시가평가에서 3억 6,700만 스위스프랑의 손실을 기록하였음.

* CDS(Credit Default Swaps): 기업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신용 파생상품거래.

- 스위스 리는 CDS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으나(run-off) 기존 거래에 대한 시장가치 변동 위험에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2008년 7월 한 달 간 발생한 CDS 시가평가 손실도 1억 6,300만 스위스프랑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각 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손해보험, 생명보험 부문과 CDS손실을 제외한 자산운용 부문에서 모두 양호한 영업이익을 나타냈음.

- 손해보험 부문은 보험료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언더라이팅을 통해 92.3%의 양호한 합산비율을 기록하였으며 8억 스위스프랑의 영업이익을 기록함.

- 생명보험 부문에서는 사망률과 질병률이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1% 증가한 6억 스위스프랑의 영업이익을 나타냄.

- 자산운용(Financial Markets) 부문에서는 CDS로 인한 시가평가 손실을 제외하고 13억 스위스프랑의 영업이익을 나타냈으며 이는 5.2%의 높은 투자수익률에 기인함.

○ 한편, 스위스 리는 최근 Barclays생명보험 인수를 통해 약 76만 건의 생명보험 및 연금 계약을 인수했으며, 이번 거래로 인해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SwissRe Press Release, 8/5)

□ AXA, 2008년 상반기 실적 발표

○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회사인 악사(AXA)는 2008년 상반기 실적에서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와 혼란으로 인해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거두어 사업전략 재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 기초수익(underlying earning)은 전년동기대비 7% 상승한 27억 6,600만 파운드를 기록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21억 6,200만 파운드로 전년동기에 비해 29%나 크게 하락함.

- 이 같은 당기순이익 감소는 신용스프레드(credit spreads)* 확대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고정수입 자산의 시가평가(mark-to-market) 적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신용스프레드: 회사채 신용등급 간 금리차이를 의미함. 신용등급이 다른 회사채와 얼마나 금리차가 나는가를 나타낸 수치임.

- 한편, 생명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있어서 당기 순유입은 62억 파운드, 자산관리 부문의 당기 순유입은 22억 파운드를 시현함.

- 손해보험 부문의 신규 계약 건수는 약 55만 건인 것으로 집계됨.

○ 전반적인 실적악화에 자극받은 악사는 현재 추진 중인 "Ambition 2012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신사업모델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

- "Ambition 2012 프로그램"은 전략 최우선순위를 내부 인적자원 역량강화에 두고 불필요한 사업분야는 과감히 매각해 전문성을 높이며, 통일된 단일 브랜드를 사용하여 분권화되어 있는 현재의 조직 체계 내부에 중앙집권적 기업문화를 조성, 진정한 글로벌화 달성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음.

(AXA News, 8/7)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일본 대형 손보사 7월말 수입보험료 실적 저조

- 일본의 상위 6개 손해보험회사의 7월말 영업실적을 보면 닛세이동화손해보험을 제외한 5개사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5개사 모두 4월부터 자동차손배책임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22.2% 인하되었던 것이 수입보험료 감소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됨.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할 경우 손해보험재팬, 니혼코아손해보험은 수입보험료가 증가
- 닛세이동화는 수입보험료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증가(전년 동월 대비 0.5%)가 전체 성장을 끌어 올림.
 - 모회사인 니혼(日本)생명보험의 영업직원을 통한 교차판매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도쿄해상니치도(東京海上日動)화재보험과 미츠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화재보험은 7월부터 새로운 자동차보험상품을 출시했지만 수입보험료는 감소
 - 도쿄해상은 7월중 금융청에 보고된 보험료 과당 징수에 관한 조사 영향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은 측면이 큰데 향후 점차 수입보험료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 미츠이스미토모해상도 신상품의 출시로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폭이 전월대비 0.8%p 개선되고 있어 8월 이후는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한편,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대형 계약 누락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

며 전체적으로는 특종보험이 20.7%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보험료가 8.4% 감소

(FujiSankei Business 8/7)

□ 일본 정부 사실상 경기침체 국면 진입 밝혀

- 일본 정부는 7일 발표한 8월 월례 경제보고에서 경기 기조에 대한 판단에서 「회복」의 표현을 삭제하는 등 경기 침체에 접어들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나타냄.
- 이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지속되어온 경기상승 국면이 막을 내리고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함.
- 민간 경제전문가의 상당수는 작년 말에 이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갔었으나 일본 정부가 이제야 경기침체의 판단을 내렸다고 말하며, 일본 정부의 「케도수정」은 향후의 경제 재정운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요사노 가오루 신임 경제재정상은 일본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가 약세의 국면으로 전환한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함.
- 이부키 분메이 신임 재무상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은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하강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매우 어려운 경제 여건이다」고 토로함.
-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지난주 초 유가 급등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을 지시한 바 있음.
- 7월 월례 경제보고에서 전임 오타 히로코 담당상은 '경기가 일진일퇴를

계속하면서도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표명한 바 있었으나 경기침체의 우려가 확실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사이에 인식이 겨우 좁혀가고 있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분석임.

- 일본 정부의 경기침체 인식의 배경에는 경기를 지지하는 수출, 생산, 고용이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 국민생활은 다소 걱정되지만 '침체는 짧고, 내년에는 회복'이라는 것이 일본 언론의 전망이다.
- 또한 미국이 밝힌 감세 등의 경기부양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내놓고 있음.

(산케이신문 8/8)

□ 일본 생보사, 자금 조달 수단 다양화 추진

- 최근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공모에 의한 후순위채 발행하는 등 자금조달을 다양화하는 시도를 확대함.
- 상호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하지 못해 유연성의 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만, 최근 여러 수단을 통해 자금조달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음.
- 스미토모생명은 7월 7일 상한 20억 유로의 유로 MTN 프로그램을 설정
- MTN 프로그램은 사채 발행에 의해 자금조달을 예정하고 있는 발행기관이 미리 딜러와 발행에 관한 기본계약을 하고, 채권 발행 관계인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정해 두는 것으로 발행 한도 금액 내에서 수시로 발행되는 채권을 일컫음.
- 무디스는 이 프로그램에 근거해 발행되는 선순위채권에 대해 A3, 후순위채권과 하이브리드 캐피탈채에 대해서는 Baa1의 등급설정을 부여함.
- 이러한 등급설정은 해당 채무와 보험계약(채무)과의 관계, 스미토모생명의 재무건전성 평가 A2를 고려해 결정됨.

- 스미토모생명은 지금까지 자금 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자본의 질이나 자본조달의 유연성 향상, 재무 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해 왔지만, 유로 MTN 프로그램의 설정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본 조달과 안정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짐.
- 또한, 부국생명은 후순위채권의 발행을 과거에 실시 한 바 있으며, 기타 생명보험회사들에서도 기금의 증권화 등에 의해 투자자 층을 확대하는 것으로 재무의 유연성을 높이는 움직임도 늘고 있음.
- 2010년도 상반기까지 다이이치생명은 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아울러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주식회사 전환을 통한 재무 유연성 확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개발 유연성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천명함.

(보험매일신문 8/4)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 연금보험시장, 이제는 중소기업이다

- 은행과 보험회사가 기업연금,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연금시장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음.
- 대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그룹 소속 금융회사에 연금을 가입하고 있어 그 벽을 넘기 쉽지 않은데 반해, 중소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상대적으로 공략하기 쉽다는 점이 보험회사들에게 어필하고 있음.
- 한국이 10여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연금보험 시장이 자연스럽게 발전단계에 따른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최근 수 년 동안 진행돼 온 국유기업 연금보험 가입 열기는 금년 들어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대형국유기업이 연금보험 시장이 주력이며, 광둥성(廣東省)을 예로 들면, 성내 22개 대형 국유기업 중 연금보험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9개, 시행허가를 받았으나 시행을 미루고 있는 기업이 7개, 시행방안을 제출했으나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이 6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일부 보험사가 종업원 연금보험의 가입자격을 갖춘 우량 중소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상장사나 업종별 상위그룹에 포진한 기업 위주로 시장을 개척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특히 금융기관에서 내놓은 중소기업 연금관리 방식이 대기업과 달리 비용절감이 가능한 '집중관리방식'이라는 점에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음.

(광저우일보, 8/7)

□ 중국 보감위, 보험회사 자산운용 범위 확대

- 상반기 결산보고서에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보감위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 보감위는 최근 보험자산관리회사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그 결과 '프로젝트 및 시범투자확대, 투자비율관리' 등의 감독방향을 설정했다고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회사 자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범위가 확대되고 채권투자 비율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지난 2006년 3월 보감위는 <보험자산 기초시설 프로젝트 간접투자 시범운영관리방법>을 발표하고, 보험회사가 채권, 주권 등의 방식으로 교통, 통신, 에너지, 환경 등 국가주요 기초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으나, 발표 당시 '관리방법'에는 보험회사의 투자비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음.
- 이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회사 자산의 기초시설 투자비율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건별 허가 방식에서 향후 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허가를 해준다는 방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보감위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기초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치는 직전분기 회사 보유자산 총액의 8%까지며, 채권 5%, 주식 3%로 상한선을 규정한다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음.
- 아울러 단일 항목에 1개 보험사가 단독으로 투자할 수 없으며, 투자가 가능금액은 최고 20억 위안 이내로 제한되고, 투자총액 중 보험회사의 투자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중국증권보, 8/7)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8.1(금)	08.8.8(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72	5.70	-0.02
	美 10년국채	4.03	3.95	3.93	-0.02
	英 10년국채	4.51	4.81	4.68	-0.13
	日 10년국채	1.51	1.53	1.47	-0.06
주가	韓 KOSPI	1,897.13	1,573.77	1,568.72	-0.3%
	韓 KOSDAQ	704.23	535.76	525.54	-1.9%
	美 DJIA	13,264.82	11,326.32	11,734.32	3.6%
	美 Nasdaq	2,652.28	2,310.96	2,414.10	4.5%
	英 FTSE100	6,456.90	5,354.70	5,489.20	2.5%
	獨 DAX30	8,067.32	6,396.46	6,561.65	2.6%
	佛 CAC40	5,614.08	4,314.34	4,491.85	4.1%
	日 Nikkei225	15,307.78	13,094.59	13,168.41	0.6%
	中 상해종합	5,261.56	2,801.82	2,605.71	-7.0%
	대만 가권	8,506.28	7,002.54	7,209.04	2.9%
환율	홍콩 항셱	27,812.65	22,862.60	21,885.21	-4.3%
	원/달러	938.20	1,014.60	1,024.10	9.50
	원/100엔	833.33	938.01	928.17	-9.84
	엔/달러	112.58	107.56	110.16	2.60
	달러/유로	1.47	1.5558	1.5044	-0.05
	위안/달러	7.30	6.8315	6.8570	0.03